

전북 군산시 옥도면 피음도. 습새의 번식지요,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이곳은 군산 미공군 전술비행단에서 발진한 전폭기들의 폭격장소이다. 멸종위기의 바닷새 습새의 번식지로서 한국의 생태학자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폭격장소를 옮길 것을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곳이다.

습새들은 수만 년 동안 바다의 섬에서 살아왔다. 부리의 콧구멍이 위로 향해 있고 포란기간도 70일 가량 길다는 점에서는 어찌면 진화가 덜된 원시성 조류이다. 습새는 귀소본능이 강해서, 폭격 때문에 동료들이 죽어 가는데도 멀리 태평양과 동남아에서 날아와 자신들의 고향인 이곳 피음도에 둥지를 튼다.

1996년 9월 6일 필자는 피음도에 미공군의 폭격연습이 없다는 한국 해경의 정보를 믿고 현장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폭격현장의 한가운데서 미 공군 F-16전폭기의 위협사격에 시달리며 생생한 폭격현장을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피음도 생태조사단 여섯 명이 군산 여객선터미널을 떠난 것은 새벽 6시 40분이다. 우리가 빌린 8톤 어선의 선장이 지각해 예정보다 40분 늦게 출발하여, 오전 9시 42분 배가 피음도 앞 5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굉음과 함께 F-16전투기 한 대가 우리 배 바로 위를 지나가더니 이어 9시 45분

과 50분, 54분에도 상공을 몇 차례 저공 순회하고는 사라졌다.

우리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해경상황실을 통해 당일 폭격 훈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공비행을 통상적인 비행훈련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섬 주변을 돌며 접안 지점을 찾고 있던 10시 정각에 F-16이 다시 나타나 신호탄 여섯 발을 쏘았다. 잇따라 1분 간격으로 신호탄이 두 차례 더 발사됐고 전투기도 네 대로 늘어났다. 날개에는 이름 모를 미사일과 폭탄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빨리 배를 빼! 이진 실제 상황이야!” “저놈들의 날개를 봐! 폭탄을 장착하고 이륙한 놈은 위험해서 그대로 착륙할 수 없어. 저놈들은 포사격을 위해 발진한 비행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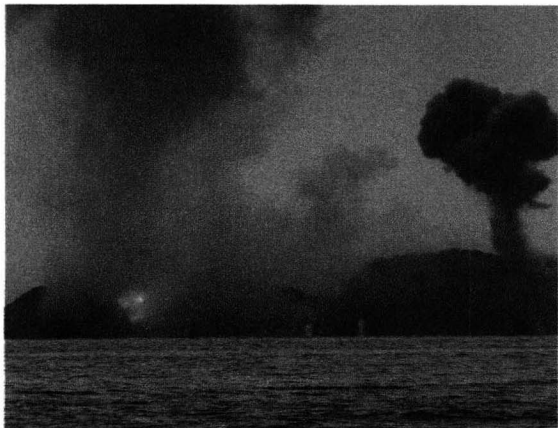
그제야 우리는 해경상황실의 확인이 오류였음을 깨달았다. F-16편대의 저공비행 소리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게다가 신호탄 섬광이 스쳐갈 때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폭발할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다행히 10시 15분쯤에 200톤급 해경순시선이 나타나 한계속도 8노트의 우리 배를 밧줄로 매달고는 최대속도 40노트로 폭격구역 밖으로 탈출했다.

6킬로미터를 달려 폭격권을 벗어난 10시 50분, 피음도 상공에 섬광이 번쩍이며 시커먼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마치 B-29에서 폭탄을 수놓듯 작은 폭탄들이 피음도 상공을 뒤덮더니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 F-16편대는 그 뒤로도 10분 남짓 피음도를 무차별 폭격하고는 11시 3분경 군산비행장 쪽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구사일생이라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써야 할 것이다. 배가 정시에 출발해서 섬에 상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조사단은 피음도의 습새들과 더불어 흔적도 없이 몰살당했을 것이다.

“이 땅이 미국의 자연보호구역이라면 이렇게 무차별로 폭격할까?” 야생 동식물의 보존과 보호는 어느 한 나라의 이해를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파괴만을 일삼아 온 인류가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을 속죄하는 길이다. 2차대전 후 일본이 특산종 딱따구리를 보존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 공군의 사격장이었던 류큐(琉球)열도의 한 섬에 있던 폭격연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글**

글 | 김연수(문화일보 사진부장)



수난의 땅 피음도에서의 구사일생